

碩士學位請求論文

教師가 知覺한 社會的 支持와
精神健康과의 關係

- 濟州道 高等學校 教師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宋 相

教師가 知覺한 社會的 支持와 精神健康과의 關係

-濟州道 高等學校 教師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許 鐵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 年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 專攻

提出者 宋 相

宋 相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 年 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사회적 지지의 의미와 특성	5
2. 교사의 정신건강의 의미와 특성	8
3.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	11
III. 연구 방법	14
1. 연구 대상	14
2. 측정 도구	14
3. 자료 처리	17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8
1.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 정도	18
2.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19

V. 요약, 결론 및 제언 28

 1. 요약 28

 2. 결론 29

 3. 제언 30

참고문헌 31

영문초록 i

부 록(설문지) 1



표 목 차

<그림Ⅱ-1>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13
<표Ⅲ-1> 연구 대상의 분포	14
<표Ⅲ-2>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영역,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15
<표Ⅲ-3> 정신건강 측정도구의 영역,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16
<표Ⅳ-1>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	18
<표Ⅳ-2> 사회적 지지정도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19
<표Ⅳ-3> 간접적으로 지각한 4가지 형태별 사회적 지지정도와 정신건강 과의 상관관계	20
<표Ⅳ-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정도의 차이	21
<표Ⅳ-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변량 분석	22
<표Ⅳ-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23
<표Ⅳ-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한 변량 분석	24
<표Ⅳ-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25
<표Ⅳ-9>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하위 개념 차이	27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

-제주도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송 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허철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체적·심리적인 손상을 위협하고 긴장과 불안을 주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산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이 중요한 측면으로 인정되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과 대학생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교육의 질과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 중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교사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9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이었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일반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신 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훈구(1986)가 간이화한 간이 정신 진단 검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등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사가 종합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평균 점수는 53.67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의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 2) 교사의 정신건강 수준은 간이 정신 진단 검사의 점수는 83.98로,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의 평균보다 높았다.
- 3)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수준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669$, $p<0.01$). 그러므로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높을 것이다.”라는 연구의 문제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는 상관이 낮게 나타났고($r=0.3635$ $p<0.01$),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중위 수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6466$ $p<0.01$).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의 형태별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수준과는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건강 수준에는 *t*-검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량 분석에서는 성별과 학과목에서는 경력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나타났다.
- 5)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모두 정신건강 수준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하위 개념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경력별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뿐 그 이외의 하위 개념에는 차이가 없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1) 교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도는 낮았다. 이는 교직이 타 직종과는 달리 학생과의 관계 중심이고 다른 지지망과 지지체들과의 관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시각 때문으로 분석된다.
- 2) 교사들의 정신건강 점수 점수가 타집단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 교사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3)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정도가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정도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인 결과를 볼 때, 사회적 지지망이 넓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아도 사회적 지지는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성별과 교과목에서 경력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제주도 고교 교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게 나타나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교사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는 지지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본 논문은 2000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 가운데 하나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은 생명공학과 유전공학 같은 과학을 이용하여 신체를 대신하는 기계를 만들어 생명을 연장시켜 수명을 늘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 영역까지 인간의 뜻대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 연장과 편리한 생활 제공 및 정신 영역까지 조정하려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오히려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인간성을 파괴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날로 늘어가는 정신병원, 정신신경증환자, 심인성신체질환자, 성격이상자들,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비롯한 불안과 공포 및 부적응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구를 주어진 환경의 요구에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또한 현실적인 가능성과 상황에 비추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교사도 한 인간으로써 사회환경에 적응하며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임무와 자신의 욕구를 교육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과 및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현직 교사들은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할 만큼 적응을 못하고 있다. 과거에 매우 높았던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재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교권 실추 현상, 정년 단축 문제 등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교사들에게 주고 있어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중희(1973)가 조사 연구한 교사의 부적응 유발하는 고민거리에 의하면 교육시설의 미비, 승진 승급의 기회 부족, 전문적 업무량 과다, 학급규

모의 과대로 인한 교과지도 활동상의 지장, 자기자녀가 교직에 종사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욕구불만, 일반업무의 과다, 복지후생제도의 미비, 정당하게 인식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체적, 심리적인 손상을 위협하고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를 극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다.

홍근표(1984)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조장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Dean & Lin(1979)는 '스트레스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방어적이고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중재 또는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며, 그 이외에도 Lin(1979)에 의한 중국계 미국인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Berkman(1979)에 의한 사회적 지지와 사망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Gore 등(1978)에 의한 실직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에서 실직된 사람과 도시 사람과의 사회적 지지 정도의 비교 등이 사회적 지지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완충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Lipton 등(1981)에 의한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연구, Mullisdhk Byers(1987)의 일반인과 정신과 환자간의 사회적 지지도의 비교 연구 등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 자체를 증진시키며,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제로서(Cobb 1976, Turner 1981), 건강 유지를 위한 예보제로서(Berkman & Syme 1979), 질병의 결과를 중재하는 측면에서(Pilisuk & Froland 1977), 문제 해결 능력 강화제(Sarason 등 1983)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정신과적인 증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복잡한 현대 사회에 나타나

는 정신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신과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Pilisuk & Froland1978).

사회적 지지의 정신과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문헌에서 살펴보면, Brim(1974)은 사회적 지지의 차원인 조력, 가치 유사성, 관심과 대상자가 지각한 행복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고, Lambert(1973)는 생의 위기 시 정신적 조정법에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Anderws(1978) 등은 위기 지지 같은 사회적 지지 변수와 긴장 해소 방법 등에 의해 정신과적 손상이 증가되거나 감소된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 생활 사건 연구에서 위기 동안에 친척, 친구, 이웃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정서 장애를 적게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이숙 1986).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과 대학생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는 많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 교사의 정신건강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정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수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 사회망 구성원을 통해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지지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 주는 자신의 사회 관계에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 등에 대한 지각 정도 등을 말한다(박지원 1985).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일반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정신건강

질병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지니고, 또한 일상 생활에서 독립적 자주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며, 동시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의 균형과 통합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이숙자 1990).

본 연구에서는 이훈구(1986)가 요인 분석하여 간이화한 47문항의 간이 정신 진단 검사에 의해 측정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모집 대상을 제주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교사에 국한하여 임의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나 여기에서는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측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고찰하려 한다.

1. 사회적 지지의 의미와 특성

사회적 지지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란 「공동 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발전 단계를 이룬 집단」으로 정의되어 있고, 지지(支持)란 「어떤 개인이나 단체 따위의 의견·주의·정책 따위에 찬동하여 원조함」(동아 새국어사전 1977)이며, 지지행위(支持行爲)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용기를 주고, 신뢰를 갖게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돈이나 생계를 유지 또는 제공해주고, 변호 또는 확증을 제시하고 배려해주는 행위」(웹스터 사전 1965)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란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 주고 받는 배려와 원조 행위라 할 수 있다.

위의 두 정의를 기초로 사회적 지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조직망 즉 가족, 친지, 학교, 친구, 사회단체 속에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aslow는 이 욕구들을 관심,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 등을 얻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인자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용어는 1970년대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하는 뜻으로 Cassel(1974), Caplan(1974), Cobb(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또한 Cassel(1974)은 급속한 사회 변화, 사회 및 가족의 분열, 가족의 능력 및 응집력, 문화적인 이주 및 건강 결과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의미있는 사회적 접촉의 이탈로 인한 사회적 지지의 기여가 건

강이나 안녕 상태를 약하게 해 준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Caplan(1974)은 사회적 지지는 위기를 당했을 때 자아의 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Cobb(1977)은 사회적 지지는 위기시에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 변수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Kaplan(1977)은 사회적 지지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으로 보았다.

Kahn(1980)은 개인간의 상호 작용으로 타인에 대한 호감(affection), 타인의 언행에 대한 긍정(affirmation)과 타인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물질적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이라고 했으며, Lin 등(1979)은 타인, 집단, 지역 사회에 의한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지지라 하였고,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 중 한 개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 관계적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Cobb(1976)은 정보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면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경을 받고 가치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존경 지지, 대화할 수 있고 상호 의무가 있는 망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주는 정보인 사회망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포함시켰으며, Richter(1984)는 사회적 지지를 대인관계적 지지와 동일시하면서 정서적 지지, 물질적 도움,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박지원(1985)은 지지적 행위의 속성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 4가지 범주의 첫째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한 정서적 지지, 둘째는 직업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등과 같은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셋째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

가적 지지, 넷째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 물질적 지지를 말한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적 차원에 있어서는 그 특성상 구조와 기능의 차원이 포함되는데,

첫째, 구조적 속성이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유효한 조직망의 크기, 밀도, 접근 가능성, 친척 관계, 접촉 빈도와 안정성의 빈도를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망의 근원은 광범위하지만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직원 및 전문직을 가진 전문가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Norbeck 1981).

둘째, 기능적 속성이란 지지의 형태, 지지의 만족도 등을 포함한 지지의 질과 내용에 중요성을 둔 것이라고 하겠다(Thoits 1982). 위의 2가지 개념 차원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려는 의도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측면 즉, 사회적 조직망 자체보다는 개인에게 지각된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망 구성원을 통해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 개인의 지각을 통해 제공받았다고 느낀 지지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Pealin 등(1981)도 지지 체제를 사회망의 구조와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지지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관여한 관심의 수준까지 이를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으며, 사회망에 속하게 되는 것은 단지 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첫 단계일 뿐, 최종 단계는 사회망 안에서 지각할 수 있는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Malone(1988)도 사회적 지지망이 넓다는 것과 사회적 지지를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노력이 그 도움을 받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Lefcourt 등(1984)은 개체의 지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각된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선 제공된 지지 행위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사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Husaini(1982)도 개인이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어도 이를 실제에서 찾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으

면,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개인이 지각하여 평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접촉의 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떤 상황에 대해 기대하는 지지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주위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유대감의 자아 지각 정도 즉, 지지 욕구의 충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Malone 1988) 이는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적 작용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능적인 측면, 즉 지지의 형태와 지지 욕구 충족 정도에 초점을 둌으로써 대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2. 교사의 정신건강의 의미와 특성

‘정신건강은 어떤 상태인가?’를 명확히 한계를 설정하고 규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선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또 어떤 입장에서 고려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폭넓고 종합적인 개념이다.

Sullivan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타인과 통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항상 현실적으로 관계를 맺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인 만족과 안정은 정확한 지각과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신념을 가질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임승권 1988)

Maslow는 인간의 욕구체계인 최하위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하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등에 바람직하게 대응할 때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임승권 1988).

김명정(1973)은 ‘정신과 신체는 그 자체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거의 모든 신체질환에는 그 질환에 걸리기 쉽도록 하는 심리적 취약성이 내재해 있다.’고 했고,

이상우(1988)는 ‘많은 육체적 질병은 정서적 긴장으로부터 올 수 있으며 또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현장에서도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다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신위생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의 보고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포함하여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wholesome) 균형 되고(balanced) 통일된(integrated) 성격의 발달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으며, Wallin(1949)도 ‘건전한 정신이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과 만족스런 인생철학과 건전하고 균형과 통합을 이룬 성격’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조은숙 1983).

Kilander(1962)는 ‘정신건강이란 사람이 환경을 바람직하게 조성하고 잘 적응하며 만족과 성공과 능률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Bower(1961)는 ‘정신건강이란 개인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과 탄력성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은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독립적, 건설적, 자주적으로 자기 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성격체를 의미하고 있다(조은숙 1988).

위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정신건강이란 환경에 대한 단순한 순응이 아니라 환경이 적절치 않을 때, 개인이 그 환경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려 노력하거나 그 기회를 극대화시키려는 하는 것을 정신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교사도 한 인간으로써 사회환경에 적응하며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임무와 자신의 욕구를 교육환경에 어떻게 적

용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현직 교사들은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할 만큼 적응을 못하고 있다

미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조사에 의하면 전교사의 37.5%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늘 어떤 불안으로 교직 능률 향상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 불안의 원인을 빈도에 따라 제시해보면 재정난, 현실적인 경제문제, 친척 또는 친구의 중환, 아동의 성적부진, 개인의 건강문제, 미혼 정상적인 가정관계의 결여, 기율문제, 학교장에 의한 자기의 근무성적 채점, 실직, 대학과정의 공부, 불행한 결혼, 종교문제 등이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나타나는 교사들의 장애에 대한 Greenberg(1955)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교사 약 30%가 진성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며, 약 20%는 부분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

Willey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사를 크게 신경질적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교사로 보고 그 행동 특성이 빈틈이 없고, 학자인 체하고, 형식과 정서에 치우치며, 학급을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정적 유지를 시키려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다(정우현 1977).

Ryans(1965)에 의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높고 정신이 건강한 교사는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교사에 비해 자신감이 높고 유쾌한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며 학생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즐기며, 학생에 대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비지시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Combs(1965)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 즉, 우수한 교사일수록 그렇지 못한 교사에 비해 자아에 관한 지각에 있어서 자아수용의 태도가 전전하며,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아관념이 강함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직종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지만 교사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생의 성격 발달과 학습 효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므로 더욱 심각한 문제들

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먼저 자기이해를 통해서 정신적 갈등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Manning(1953)는 교사가 자기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7가지의 자기 반성을 위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왜 내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때때로 화를 내는가?

둘째, 나는 왜 늘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셋째, 나는 어째서 실제적으로는 신체적 결함이 없는데 자꾸 아픈 것 같은 기분이 드는가?

넷째, 나는 왜 항상 외롭다고 느끼거나 낙담하는 일이 많은가?

다섯째,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가?

여섯째, 나는 왜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가?

일곱째, 나는 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만이 가득한가?

3.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몇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치명률을 연구한 Berkman과 Syme(1979)은 성인을 대상으로 추후 9년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이 사회적인 접촉이 많은 사람보다 치명률이 높았다고 하였고,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적절한 사회적 연대감이 없거나, 사회적 지지가 없는 사람은 정신 질환의 높은 발생률과 관련이 있음을 함께 보고하였다. Pilisuk(1982)은 지지적인 대인 관계가 건강 유지에 중요하며, 특히 건강 관리에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Mullis와 Byers(1987)는 자살을 시도한 정신과 환자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정신과 환자간에 사회적 지지도가 차이가 없었고,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정신과 환자의 사회적 지지도가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손경희(1983)는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질환자군의 사회적 지지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일반적으로 지각한 사

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숙(1986)의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지지 비교 연구, 황승숙(1989)의 간호사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진혜영의 암환자 가족과 Non-cancer 환자 가족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들의 결과들은 건강 상태와 사회적 지지 정도와의 관계를 부분적(황승숙 1989, 진혜영 1987) 또는 전반적으로(이숙1986) 긍정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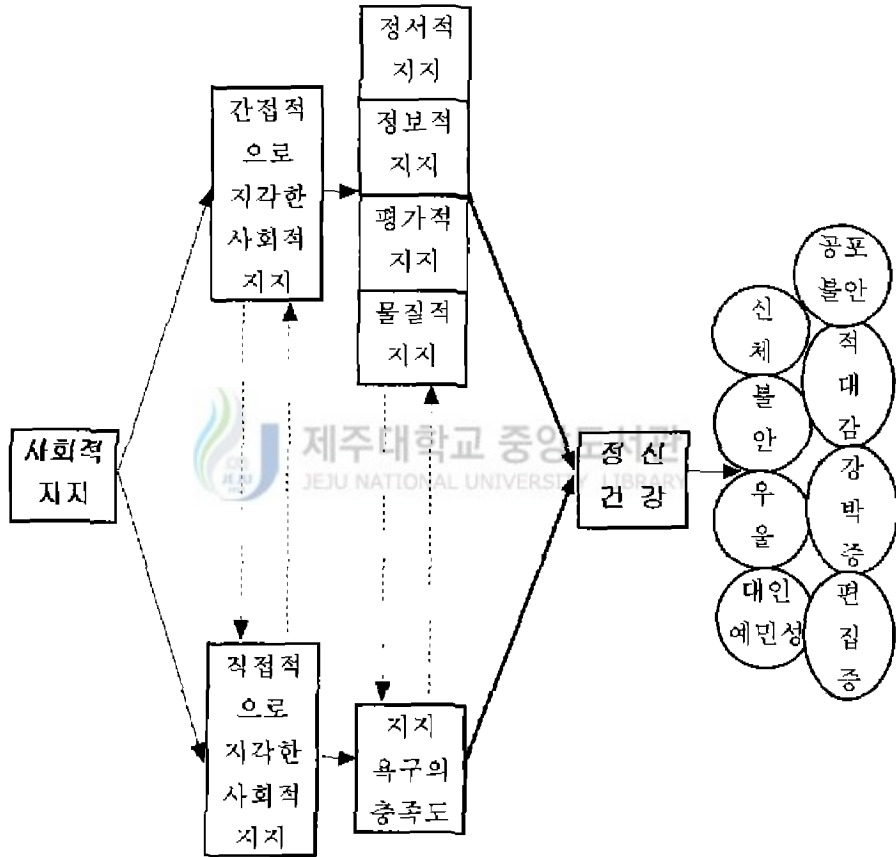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의 손상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혁과 교육개혁, 정년 단축, 교권 실추 등으로 인해 야기된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없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교사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인 특성에 대한 간접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와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인 특성을 통한 지지 욕구의 충족도를 반영하는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로 구성된다. 사회적 지지가 기능적인 특성으로 분류된 지지 형태의 유형을 보면(박지원1985),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지지 유형과 지지 욕구의 충족도를 대상자가 간접적·직접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삼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정신건강은 8개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의학적인 응급치료를 요청하지만 아무런 기관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모호하고, 재발되는 신체적 증후, 생활문제에 직면하는 걱정거리, 두려움 및 위협감과 같은 불안감, 슬픔, 비탄, 죄책감 및 자기 비난의 감정으로 압도되는 우울증,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어려우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의 능력 결핍, 사랑과 수용에 대한 강한 욕망과 염려, 심각한 고민을

보이는 대인 예민성, 어떤 대상이나, 인간 또는 행동 및 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공포 불안, 상대방에게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적대감, 충지시키려는데도 자꾸만 떠오르는 불수의적인 사고나 관념인 강박감, 다른 사람들을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편집증의 증상들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두변수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1>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제주도 전역에 있는 인문계 남·녀 고등학교 각 2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4개교 중 남교사 161명, 여교사 62명을 합한 223명을 유한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근무경력은 10년 단위로 3급간으로 정하였다. 자료 조사 기간은 1999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였다.

연구 대상의 분포는 <표Ⅲ-1>와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의 분포

항목별	성별		학교별		학과목별		근무경력별			계
	남	여	인문계	실업계	인문 과목	실업 과목	0- 11년	11- 20년	21- 30년	
인원수	161	62	112	111	68	155	45	111	67	223
(%)	72.2	27.8	50.2	49.8	30.5	69.5	20.2	49.8	30.0	100%

(n = 223)

2. 측정 도구

측정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질문지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4문항, 간접적 사회적 지지를 묻는 25문항,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묻는 15문항, 정신건강을 묻는 47문항 등, 총 91문항으로 되어 있다

1)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대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측정 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산출된 점수의 총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영역, 내용,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영역,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영역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경청 등	15문항	.85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경청 등	1, 6, 7, 8, 11, 12, 16, 18, 21, 24번	.94
	정보적 지지	사건 해결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 행위	9, 14, 17, 22, 25번	.89
	평가적 지지	칭찬,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하게 해주는 행위 등	2, 4, 5, 10, 19번	.83
	물질적 지지	돈, 시간, 물적, 노동의 제공 등	3, 13, 15, 20, 23번	.89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점수 배분은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교사 자신의 지지 욕구의 충족 정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체에 대한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 등을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절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배점되며, 부정문항의 경우는 반대로 점수가 배점된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각 문항별 점수는 「모두에게 그렇게 느낀다」 5점, 「반수에서 그렇게 느낀다」 4점, 「보통이다」 3점, 「반수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2점, 「모두에게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1점으로 배점된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 (황승숙 1989), $\alpha=0.85$ (박지원 19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또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한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0.97$ (황승숙 1989), $\alpha=0.95$ (박지원 1985), $\alpha=0.92$ (김연숙 19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도구의 Cronbach's $\alpha=0.97$ 로 나타났다.

2) 정신건강 측정 도구

정신건강 수준의 측정은 Derogatis(1973)가 Hopkins Symptom Check List(HSCL)를 발전시켜 만든 90문항의 Syptom Check List(SCL90)를 김광일과 원호택 등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SCL-90-R)을 이훈구(1986)가 이를 요인 분석하여 제작한 47문항의 간이 정신 진단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낮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영역, 내용,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표Ⅲ-3>와 같다.

<표Ⅲ-3> 정신건강 측정도구의 영역,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영역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신체화	계속해서 의학적인 응급치료를 요청하지만 아무런 기관적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모호하고, 재발되는 신체적 증후	2,7,13,19, 25,31,37, 43번	.84
불안	생활문제에 직면하는 걱정거리, 두려움 및 위협감	5,10,11, 16,20,23,40번	.85
우울	슬픔, 비탄, 죄책감 및 자기 비난의 감정으로 압도되는 장애	1,6,12,24,30, 42번	.87
대인 예민성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어려우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의 능력 결핍, 사랑과 수용에 대한 강한 욕망과 염려, 심각한 고민을 보이는 성격	8,21,27, 32,39,46번	.77
공포 불안	어떤 대상이나 인간 또는 행동 및 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두려움	3,14,26, 34,38,44번	.84
적대감	상대방에게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	4,17,29, 35,41,47번	.81
강박감	중지시키려는데도 자꾸만 떠오르는 불수의적인 사고나 관념	18,22,28,36번	.68
편집증	다른 사람들을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장애	9, 15, 33,45번	.75

반응은 자신의 증상을 평점할 수 있도록 각 문항별로 「전혀 없다」 0점, 「약간 있다」 1점, 「웬만큼 있다」 2점, 「꽤 심하다」 3점, 「아주 심하다」 4점으로 배점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6$ (김범준 1987), $\alpha=0.97$ (최정훈 1988), $\alpha=0.95$ (김연숙 1991) 등이었으며, Y대학 학생 생활연구소에서는 매년 이 도구를 사용하여 신입생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6$ 이다

3. 자료 처리

배부된 질문지 수는 인문계 고교 120부, 실업계 고교 120부 총 240부였으며 이 중 232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회수된 질문지 중 정신건강 질문지에 표시하지 않거나 한 곳에만 반응한 부적절한 질문지는 제외하였다.

자료 분석에 이용된 질문지는 223부였고, 이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수준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 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 검증과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 검증을 위해 t -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형태별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정도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정도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지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사회적 지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 (n = 223)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회적 지지	53.67	7.36	36.00	75.00
정신건강	83.98	21.80	47.00	156.00

<표IV-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의 평균은 53.67, 표준편차 7.36, 최소값 36.00, 최대값은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와 비교해볼 때,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정신 질환자와 비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이숙(1986)의 연구 결과에서는 비정신 질환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평균 69.92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황승숙(1989)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정도의 평균이 68.88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이 타 직종과는 달리 학생과의 관계 중심이고 다른 지지망과 지지체들과의 관계가 많지 않으며, 교사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시각으로 인해 교사들이 지각하는 지지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정신건강 수준은 평균 83.98, 표준편차 21.80, 최소값 47.00, 최대값 15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같은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와 비교해볼 때 김범준(198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남자대학 신입생의 평균 점수 38.90보다 훨씬 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최정훈 등(1988)의 서울지역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한 평균 점수 62.28, 김연숙(1991)의 서울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점수 63.2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과 고교생의 정신건강 수준보다 본 연구 대상자인 교사의 정신건강 수준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고 있다.

2.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종합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정신건강 수준	-.6466 **	-.3635 **	-.4669 **

(**p<0.01)

<표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가 종합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는 중위 수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669$, $p<0.01$).

이러한 결과는 정신 질환 증상이 심한 경우를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할 때 사회적 연대감이 없거나, 사회적 지지가 없는 사람은 정신 질환의 높은 발생률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Berkman과 Syme의 연구 결과와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 지지도가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한 손경희(1983)와 이숙(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교사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

는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0.3635$ $p<0.01$), 교사가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중위 수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6466$ $p<0.01$).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정도가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정도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인 결과를 볼 때, 사회적 지지망이 넓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아도 사회적 지지는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도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4가지 형태별 지지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간접적으로 지각한 4가지 형태별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정서적 지지도	정보적 지지도	평가적 지지도	평가적 지지도
정신건강	-0.3407 **	-0.3344 **	-0.3106 **	-0.3025 **

(** : $p<0.01$)

정신건강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정도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IV-4>, <표IV-5>와 같다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남·녀 교사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보면 물질적 지지도($t=-2.24$, $p<0.05$)와 평가적

<표IV-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

구분	사회적지지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도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도			
				정서적 지지도	정보적 지지도	물질적 지지도	평가적 지지도
성별	남	\bar{x}	53.24	40.14	19.13	18.91	19.58
		SD	7.51	6.40	3.32	3.14	3.44
	여	\bar{x}	54.75	42.07	19.98	20.03	20.75
		SD	6.90	6.76	3.68	3.59	3.57
	t	-1.37	-1.94	-1.65	-2.24*	-2.22*	
학과 목별	인문 과목	\bar{x}	52.86	40.62	19.20	19.14	19.71
		SD	7.67	6.70	3.65	3.40	3.59
	실업 과목	\bar{x}	54.45	40.75	19.54	19.31	21.10
		SD	6.99	6.43	3.22	3.23	3.43
	t	-1.59	-0.14	-0.72	-0.38	-0.83	
근무 학교 별	인문 학교	\bar{x}	52.95	40.31	19.17	18.86	19.48
		SD	7.53	6.86	3.39	3.32	3.49
	실업 학교	\bar{x}	53.97	40.84	19.46	19.36	20.09
		SD	7.29	6.43	3.47	3.30	3.51
	t	-0.92	-0.54	-0.55	-0.99	-1.16	
근무 경력 별	0-10년	\bar{x}	54.00	41.35	19.91	19.71	20.39
		SD	5.72	7.58	3.87	3.88	3.72
	11-20년	\bar{x}	54.35	41.32	19.80	19.65	20.27
		SD	7.56	5.71	2.98	2.77	3.14
	21-30년	\bar{x}	52.27	39.05	18.24	18.12	18.97
SD		7.86	6.99	3.65	3.54	3.80	
	F	1.66	2.65	4.89**	4.90**	3.38*	

(**p>0.01, *p>0.05)

지지도(t=-2.22, p<0.05)에 차이가 있으나, 그 이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남교사 보다 여교사가 물질적 지지도와 평가적 지지도를 더 얻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교과목별과 근무 학교별에 따른 교사들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지각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보면 정보적 지지도(F=4.89, p<0.01)와 물질적 지지도(F=4.90, p<0.01) 평가적 지지도(F=3.38, p<0.05)에 차이가 있으나, 그 이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경력이 짧은 교사들일수록(0-10년차) 정보적 지지도, 물질적 지지도, 평가적 지지도를 더 얻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표IV-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합	평균 자승합	자유도	F
정서적 지지도	성별	28.56	28.56	1	0.66
	학과목별	5.43	5.43	1	0.13
	계열별	6.19	6.19	1	0.14
	경력별	284.84	142.42	1	3.28*
	성×학과목	5.50	5.50	2	0.13
	성×계열	0.55	0.55	1	0.01
	성×경력	30.25	15.13	1	0.35
	학과목×계열	55.67	55.67	1	1.28
	학과목×경력	16.45	8.23	2	0.19
	계열×경력	142.88	71.44	2	1.64
	잔차	7564.23	43.47	174	
	계	8219.25	43.72	188	
정보적 지지도	성별	0.02	0.02	1	0.00
	학과목별	0.00	0.00	1	0.00
	계열별	0.03	0.03	1	0.00
	경력별	100.81	50.40	1	4.39*
	성×학과목	0.22	0.22	2	0.02
	성×계열	1.40	1.40	1	0.12
	성×경력	9.26	4.63	1	0.40
	학과목×계열	7.53	7.53	1	0.66
	학과목×경력	0.55	0.28	2	0.02
	계열×경력	17.14	8.57	2	0.75
	잔차	1999.85	11.49	174	
	계	2149.81	11.44	188	

	변산원	자승합	평균자승합	자유도	F
물질적 지지도	성별	4.55	4.55	1	0.44
	학과목별	4.71	4.71	1	0.46
	계열별	9.04	9.04	1	0.88
	경력별	90.46	45.23	1	4.38*
	성×학과목	0.65	0.65	2	0.06
	성×계열	0.00	0.00	1	0.00
	성×경력	3.77	1.89	1	0.18
	학과목×계열	4.64	4.64	1	0.45
	학과목×경력	16.37	8.18	2	0.79
	계열×경력	36.94	18.47	2	1.79
	잔차	1796.83	10.33	174	
	계	1976.52	10.51	188	
평가적 지지도	성별	6.67	6.67	1	0.54
	학과목별	0.36	0.36	1	0.03
	계열별	8.28	8.28	1	0.66
	경력별	59.89	29.95	1	2.40
	성×학과목	0.01	0.01	2	0.00
	성×계열	0.93	0.93	1	0.07
	성×경력	10.06	5.03	1	0.40
	학과목×계열	0.44	0.44	1	0.04
	학과목×경력	22.83	11.41	2	0.92
	계열×경력	73.19	36.60	2	2.93
	잔차	2170.14	12.47	174	
	계	2344.20	12.47	188	

(*p>0.05)

<표IV-5>의 변량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력별에 따라 정서적 지지도(F=3.28, p<0.05), 정보적 지지도(F=4.39, p<0.05), 물질적 지지도(F=4.38, p<0.05)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평가적 지지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수준과의 차이에 대한 알아본 결과는 <표IV-6>과 <표IV-7>과 같다.

<표IV-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근무 학교별	인문계 학교	85.70	24.36	0.74
	실업계 학교	83.24	20.67	

근무 경력별	0-10	85.49	21.54	2.04
	11-20	81.05	20.34	
	21-30	87.90	23.91	
성별	남교사	84.27	22.82	0.32
	여교사	83.15	18.84	
교과목별	인문과목	85.54	21.63	1.04
	실업과목	82.37	21.97	

<표IV-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한 변량분석

	SS	MS	df	F
성별	53.21	53.21	1	0.11
교과목별	83.31	83.31	1	0.18
계열별	7.79	7.79	1	0.02
경력별	1834.80	917.40	1	1.97
성×교과목	363.58	363.28	2	0.78
성×계열	54.04	54.04	1	0.12
성×경력	3220.69	1610.34	1	3.46
교과목×계열	1214.02	1214.02	1	2.61
교과목×경력	3102.47	1551.24	2	3.33
계열×경력	119.26	59.63	2	0.13
잔차	81024.71	465.66	174	
계	90432.11	481.02	188	

(*p>0.05)

<표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건강 수준에는 *t*-검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IV-7>의 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F=3.46, p<0.05$)과 교과목($F=3.33, p<0.05$)에서 경력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IV-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건강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성별	남교사	-.6659**	-.3575**
	여교사	-.6383**	-.3879**
학교별	인문계	-.6683**	-.3562**
	실업계	-.6574**	-.3721**
교과목별	인문과목	-.6740**	-.3882**
	실업과목	-.6317**	-.3032**
근무 경력별	0-10년	-.5074**	-.3765**
	11-20년	-.7101**	-.2446**
	21-30년	-.6463**	-.4909**



(**p<0.01)

<표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중위 수준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남 $r = -.6659$, 여 $r = -.6383$, $p < 0.01$), 특히 남교사가 여교사 보다 약간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낮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나(남 $r = -.3575$, 여 $r = -.3879$, $p < 0.01$), 여교사가 남교사 보다 약간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근무 학교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중위

수준의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인문계 교사 $r=-.6683$, 실업계 교사 $r=-.6574$, $p<0.01$), 특히 실업계 교사가 인문계 교사 보다 약간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낮은 상관관을 보이고 있으나(인문계 교사 $r=-.3562$, 실업계 교사 $r=-.3721$, $p<0.01$), 인문계 교사가 실업계 교사 보다 약간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교과목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중위 수준의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인문과목 교사 $r=-.6740$, 실업과목 교사 $r=-.6317$, $p<0.01$). 특히 인문과목 교사가 실업과목 교사 보다 약간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낮은 상관관을 보이고 있으나(인문과목 교사 $r=-.3882$, 실업계 교사 $r=-.3032$, $p<0.01$), 인문과목 교사가 실업과목 교사 보다 약간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근무 경력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중위 수준의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0-10년 교사 $r=-.5074$, 11-20년 교사 $r=-.7101$, 21-30년 교사 $r=-.6463$, $p<0.05$, $p<0.01$). 특히 11-20년 교사들이 그 이외의 근무 경력별 교사보다 다소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낮은 상관관을 보이고 있으나(0-10년 교사 $r=-.3765$, 11-20년 교사 $r=-.2446$, 21-30년 교사 $r=-.4909$, $p<0.05$, $p<0.01$), 21-30년 교사들이 그 이외의 근무 경력별 교사보다 약간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하위 개념과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Ⅳ-9>와 같다

<표IV-9>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하위 개념과의 차이

구분	정신건강		신체	불안	우울	공포 불안	대인 예민	적대 감	강박 감	편집 증
성별	남	\bar{x}	13.86	13.96	10.90	9.29	12.08	10.37	7.15	6.89
		SD	4.61	3.90	3.66	2.66	3.98	3.30	2.14	2.28
	여	\bar{x}	13.95	13.95	13.95	11.15	9.26	11.60	9.71	6.03
		SD	3.95	3.95	3.57	3.13	2.52	3.27	2.56	1.81
t			0.13	0.01	-0.51	0.08	0.81	1.57	-0.28	2.88**
과목별	인문과 목	\bar{x}	14.03	14.23	11.23	9.30	12.20	10.64	7.17	6.95
		SD	4.93	3.89	3.80	2.58	4.11	3.44	2.25	2.42
	실업과 목	\bar{x}	13.82	13.83	10.85	9.28	11.84	10.00	7.18	6.63
		SD	4.21	3.78	3.39	2.65	3.66	2.97	2.03	2.08
t			0.32	0.70	0.72	0.06	0.64	1.38	-0.03	1.32
학교별	인문학 교	\bar{x}	13.95	14.20	11.29	9.41	12.13	10.49	7.29	6.79
		SD	4.27	3.70	3.63	2.58	3.81	3.31	2.12	2.24
	실업학 교	\bar{x}	13.81	13.71	10.65	9.15	11.77	9.90	7.06	6.52
		SD	4.62	3.91	3.39	2.67	3.79	2.90	2.07	2.14
t			0.23	0.96	1.33	0.74	0.70	1.40	0.79	0.88
경력별	0-10년	\bar{x}	13.86	14.45	11.47	9.37	11.74	10.23	7.48	6.33
		SD	4.17	3.87	3.93	2.65	3.46	2.97	2.32	2.18
	11-20년	\bar{x}	13.38	13.48	10.50	8.98	11.53	9.93	6.92	6.43
		SD	3.97	3.62	3.29	2.46	3.57	2.95	1.94	1.99
	21-30년	\bar{x}	14.75	14.43	11.43	9.72	12.81	10.62	7.41	7.27
		SD	5.22	3.54	3.54	2.83	4.27	3.48	2.17	2.42
F			1.94	1.73	2.00	1.67	2.38	0.99	1.67	3.62*

(**p<0.01,*p<0.05)

<표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하위 개념과의 차이를 보면 성별과 21-30년 사이 경력별에서 편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성별 t=2.88***, p<0.01. 경력별 F=3.62* p<0.05), 그 이외의 하위 개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제주도내 소재한 인문계 4학교와 실업계 4학교의 남·녀 교사들을 유한모집단으로 남교사 161명, 여교사 62명을 임의로 표출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일반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이훈구(1986)가 간이화한 간이 정신 진단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9. 9.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값과 표준편차,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 -test, ANOVA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교사가 일반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평균 점수는 53.67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의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 2) 교사의 정신건강 수준은 간이 정신 진단 검사의 점수는 83.98로,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의 평균보다 높았다.
- 3) 교사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수준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669$ $p<0.01$) 그러므로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높을 것이다.”라는 연구의 문제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는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r=0.3635$ $p<0.01$),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는 중위 수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t=0.6466$ $p<0.01$).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의 형태별 지지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수준과는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건강 수준에는 t -검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량 분석에서는 경력에 따라 성별과 교과목에서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와 정신건강 수준과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도 모두 정신건강 수준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정신건강 하위 개념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경력별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뿐 그 이외의 하위 개념에는 차이가 없었다.

2. 결 론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교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도는 낮았다. 이는 교직이 타 직종과는 달리 학생과의 관계 중심이고 다른 지지망과 지지체들과의 관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시각 때문으로 분석된다.

2) 교사들의 정신건강 검사 점수가 타집단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수준이 낮았다.

3)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정도가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정도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인 결과를 볼 때, 사회적 지지망이 넓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아도 사회적 지지는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성별과 교과목에서 경력

에 따라 정신건강에 차이가 나타났다.

3. 제 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교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사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해 교육 개혁이 가속화 되고있는 현시점과 교육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망과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와의 일치, 불일치 정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4)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와 제공받은 사회적 지지에 만족하는 정도는 다르므로, 교사의 주요 지지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5) 교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과 적용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3),“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I)”, 정신건강연구 제1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동규(1984). 정신위생, 서울: 교학과학사
- 김명정(1973). 환자와의 대화, 서울, 흥인출판사, p10.
- 김범준(1987).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그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선양 외 2인 공역(1988). 교사교육의 혁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수길(1970). 한국 소년 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논문집 pp19-48
- 김연숙(1991). 일 도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운태 외 2인 공저(1984). 교사와 교직사회, 서울, 배영사.
- 김종철외(1984) 교사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도복늬(1982).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양의학 Vol.42, No 2, Feb., 135.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 대학교 대학원.
- 손경희(1983). 정신 질환자와 비정신 질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심미경(1986).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 대학교
- 오가실, 한정석(1987)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의 관계”. 대한 간호 학회지 제20권 제3호.
- 오석환 외(1967) CMI에 의한 고교생의 정신건강진단 연구, 신경정신의학, 6.
- 오정호(1988). 고입준비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서울.

- 이기문(1997) 동아 새국어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이남균(1980). 정신위생, 서울, 재동문화사, pp203-204.
- 이상우 외(1988).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배영사신서, p96.
- 이숙(1985). 정신 질환자와 비정신 질환자의 사회적 지지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숙자(1980)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영란(1982).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옥형 외 2인 공저(1994). 교육 심리학, 서울: 집문당
- 이중희(1973). 교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p157
- 임승권(1988). 정신위생, 양서원, 1993. pp19-266.
- 장동학외 공역, 심리학 입문, 박영사, 1991. pp691-720.
- 정우현(1977). 현대교사론, 서울, 배영사, p275.
- 조은숙(1983) 정신위생, 서울, 교학연구사, p18
- 조은숙(1988). 인간성취 극대화를 위한 정신건강, 서울, 교학연구사
-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1988). 고교생과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공동 논문.
- 황승숙(1989) 임상 간호사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업무 수행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 및 정도와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Berkman, L.F & Syme,S.L(1979). "Social Networks, Host Resistance and Mortality: A Nine Year Follow-up Study of Alameda Country Resid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109, No.2, 186-204.
- Boodish, H.M.(1995). Mental Health of Teachers, Social Studies, 46
- Caplan, G. & Killilea, M(1976). Support and Mutual Help. New York: Grune and Stratton 41.

- Caplan, G.(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Behavioral Publications. 1-40.
- Cassel,J.(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ment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2(2), 108.
- Combs, A.W (1974).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Teachers". Boston Allyn & Bacon pp70-71
- Greenberg, J.(1995) "The psychiatric Impacts on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Teachers". Education 76 : pp152-154
- Kahn,R.L & Autonucci, T.C(1980) Conve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Boston' Lexington Press.
- Kaplan,B.H., Cassel,J.C. & Gore,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15(5), 47-58
- Malone,J.(1988). "The Social Support-Social Dissupport Continuum".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26(12), 18-22.
-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1959). World Publishing Co.
- Wallin, J E W.(1949). Personality Maladjustments and Mental Hygiene, N.Y.McGraw-Hill Co, pp35-43.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Teachers in Jeju-

Song Sang

Department of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eol Soo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mental health of high school teachers in Chejudo.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23 high school of teachers in Chejudo ; the number of teachers were 161 male and 62 female.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15, 1999 to October 24, 1999.

For measuring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Generally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developed by Dr. Ji Won Park and partially modified Mental Diagnostic Test developed by professor Hun Ku Lee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of the level of mental wealth.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and SPSS program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eaning score for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 was 53.67, which was lower than other groups for which this tool has been used.
- 2) The meaning score for the level of mental health was 83.98, which

was higher than other groups for which this tool has been used. This is showed that the level of mental health of the high school teachers in Chejudo is low.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health revealed a significant correlation($r=-.4669$ $p<0.01$)

Therefor the study problems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level of mental health" was accepted

4) The results from the tests for degree of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distinction of sex, career, but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distinction of subjects, school department

5) The results from the tests for degree of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subjects' demographics variable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all

6) The relationships between four types of indirectly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level of mental health were analyzed.

The emotional support ($r=-.3407$, $p<0.01$), the informational support($r=-.3344$, $p<0.01$), the appraisal support($r=-.3106$, $p<0.01$) and material support($r=-.3025$, $p<0.01$) were significantly related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level of mental health.

Therefor, multidimensional study is needed on how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teachers through the social suppor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in 2000. 2. 24

※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은 선생님이 일상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A. 선생님이 평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위에 총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명

B. A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선생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다음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일치되는 빈칸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보통이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1	그들은 모두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2	그들은 모두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3	그들은 내가 필요하는 돈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준다.					
4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 준다.					

	문항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보통이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5	그들은 모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 준다.					
6	그들은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7	그들은 나로 하여금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8	그들은 대체로 배울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다.					
9	그들은 자신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나를 도와준다.					
10	그들은 내가 잘했을 때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1	그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항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보통이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12	그들은 대체로 내가 마음 놓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3	그들은 나의 일을 도와주는데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14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15	그들은 내가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준다.					
16	그들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17	그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이나 이해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확실하게 해준다.					

	문항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보통이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18	그들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 해주고 용기를 준다.					
19	그들은 모두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20	그들은 그들이 소유한 물건 중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준다.					
21	그들은 모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준다.					
22	그들은 나에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준다.					

	문 함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낀다	보통이다	반수 이상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모두에게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23	그들은 내가 몸져 누워있을 때, 그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나의 일을 대신해 준다.					
24	그들은 내가 기분이 언짢아 할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25	그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다음의 문항들은 그 동안 귀하가 직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1	나는 가끔 낯선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3	나에겐 언제 방문해도 반가이 맞아줄 친지의 집이 있다.					
*4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5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					
*6	나는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7	내 주위에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8	나는 내 자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9	나는 매사에 열등감을 느낀다.					
*10	나는 사람들로 부터 떠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1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12	내가 멀리 떠나버린다면 마음 아파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13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들도 곧 나를 좋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과 어울려 지낼 수 있다.					
*15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는 부정문항임)

심신 건강 실태 설문 조사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감정과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래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을 골라 오른쪽 난에 V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 큼 있다	꽤 심하 다	아주 심하 다
1	외롭다.					
2	허리가 아프다.					
3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기가 두렵 다.					
4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못마땅하다.					
5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불안하다.					
6	우울하다.					
7	신경통 또는 근육통이 온다.					
8	이성을 대하면 부자연스럽고 부끄럽 다.					
9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10	자꾸 쓸데 없는 생각을 한다.					
11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12	마음속이 텅 빈 것 같다.					
13	몸의 일부가 저린다.					
14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					
15	나의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다.					
16	걱정이 많다.					
17	울화가 치밀어서 내 자신을 건잡을 수 없다.					
18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